

열화당 도서목록
YOULHWADANG CATALOGUE
1971-2011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예술’을 향한 사십 년의 여정

1971-2011

강릉의 아흔아홉 칸짜리 조선시대 고택(古宅) 선교장(船橋莊), 출판사의 발행인이 태어나고 성장한 이곳에는 열화당(悅話堂)이라는 사랑채가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즐겨 듣는다(悅親戚之情話)"라는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이 건물 이름은 출판사 열화당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1815년에 건립되어 이백 년 가까운 역사가 서려 있는 이곳은, 많은 옛 서화(書畵), 전적(典籍)들이 수장 보존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문인, 학자들이 모여 문사철(文史哲), 시서화(詩書畵)를 논하고 진리를 모색하던 예술과 학문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문집과 족보, 옛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서책 등을 펴냈으며, 1900년대초에는 '동진학교(東進學校)'라는 신교육기관이 개설되는 등 출판과 교육이 이루어지던 유서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교장의 열화당은 전통문화 보존의 산실이자 문자향(文字香) 서卷子(書卷氣)가 배어 있는 담론문화의 장(場)이었으며, 활발한 지적 생산이 이루어지던 근대

아카데미였습니다. 출판사 열화당은 이러한 인문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열화당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던 미술과 시각매체, 그리고 한국전통문화 분야의 출판에 뛰어들어, 만들기 까다롭지만 가치있는 책들을 한뫼 한뫼 엮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은 고성장, 고수익의 논리가 지배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적 생산자인 저자와 수요자인 독자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터전이라는 소신으로, 단단하고 부끄럽지 않은 도서목록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사십 년의 결실이 담긴 이 작은 목록에는,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영혼을 품고 태어난 예술작품처럼, 힘들고 더딘 작업을 거쳐 나온 칠백여 권의 책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한 권 한 권이 오래도록 살아남아 꼭 필요한 이에게 닿을 수 있게 하려는 열화당의 바람 또한 담겨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모두가 '우리 시대를 담아내고 이끌어 가는 책'이어야 한다는 소망으로, '한국문화의 미래를 떠받치는 책'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글과 그림의 정갈한 상처리며



분주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사십 년. 강릉과 서울을 거쳐 파주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열화당은,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지켜나가며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 모습은 다양해질지라도, 책의 원형을 탐구하고 활자매체의 가능성을 실험하려는 열화당의 새로운 모색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 강릉 선교장의 전경. 이곳에는 출판사의 유래가 된 사랑채 열화당(悅話堂)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주명덕, 1980.
▲ 강릉 선교장의 사랑채 열화당. 사진 주명덕, 1980.



단단함 속에 스며든 부드러움

열화당 사옥 설계자의 말

1999년 여름, 파주출판도시 설계 지침을 세운 후 출판사들이 각자의 부지를 선정할 무렵, 열화당 이기웅 사장이 우리에게 김중규 교수의 건축사무소 M.A.R.U.와 함께 열화당 사옥 설계를 의뢰해 왔다. 이 사장은 열화당 사옥을 출판도시의 랜드스케이프 방법론이 이상적으로 실현된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으며, 동시에 도시 전체의 개념을 가장 명확히 증명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열화당은 동서양의 다양한 미술과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책을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출판사이다. 우리는 이 책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건물을 디자인하는 데 어떤 높은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었다. 열화당 건물의 형상과 색은,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본, 햇빛을 가리기 위해 프레임 위로 검은 비닐망을 덮은 구조물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현무암 돌담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국적 개념 속의 비움(emptiness)과 검정색, 그리고 출판도시의 중심개념인 '랜드스케이프 안에서 도시 그리기'를 생각하면서, 마침내 검은 직육면체를 조각칼로 깎아내듯 건물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떠올렸다. 즉 건물 가장 바깥면은 검은색으로 남아 있고, 도려낸 부분은 마치 속살이 드러나듯 투명한 면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깎이고

남은 빈 공간은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되었다. 양 모퉁이가 크게 잘려 나간 3, 4층은 저층부에 올라앉은 파빌리온으로서, 이 양면은 모두 투명하게 된다. 이처럼 마치 엄청난 크기의 추상문자 조각 하나가 지평선 위에 세워져 있는 듯한 열화당 건물은, 검정색의 단단함 속으로 투명한 부드러움이 곁어들어오는 느낌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한 건축적 전략(sculptural strategy)이며, 열화당 건물의 형태적 가치(iconic quality)이다. 열화당 건물의 기본개념은 마당과 이를 끼고 있는 몇 개의 스튜디오 하우스들의 군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 2층은 출구 쪽 마당과 연결되어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두 곳, 한강에 면해 편집실로 사용되는 두 곳, 그리고 직원 및 작가를 위한 휴식 공간 한 곳, 이렇게 모두 다섯 개의 스튜디오 하우스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모두 독립된 계단으로 연결된, 층고가 다른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4층은 서재와 작은 주거 기능을 갖는 파빌리온으로, 이 1, 2층 스튜디오 하우스들의 옥상 테라스 위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모든 스튜디오 하우스들의 벽과 책장은 서로 다른 색을 지니는데, 이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화가 조르조 모란디가 1940-50년대에 사용한, 매우 안정되고 부드러운 색채에서 따 온 것이다. 또한 모든 방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투명한 벽을 지니으로써, 이를 통과한 부드러운 빛이 내부 공간을 비추도록 했다. 이처럼 열화당은 복도로 연결된 공간도 개방된 공간도 아닌, 방과 방, 방과 마당이 서로 연결된 '좋은 방들로 이루어진 집(a house of good rooms)'이다. 이는 매우 효율적인 공간 구성인 동시에 강한 건축적 정체성을 지닌다. 열화당을 방문한 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이같은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런 특성들이 열화당에 더욱 좋은 인지도를 부여하길 바란다. 설계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늘 뛰어난 재능과 관대함을 보여준 김중규 소장과 M.A.R.U.에 고마움을 표하고, 무엇보다 신뢰와 인내 그리고 굳은 의지로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준 이기웅 사장께 감사드린다.

2004년 봄
플로리안 베이겔(Florian Beigel)
필립 크리스토프(Philip Christou)

◀◀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열화당 사옥. 플로리안 베이겔, 필립 크리스토프, 김중규 공동 설계. 동넵건설 시공. 사진 조너선 러브킨, 2004.

◀ 열화당 사옥의 내부. 사진 서현강, 2004.





내재된 풍경

열화당 신관 공동설계자의 말

기존 열화당 건물과 연결되어 2009년 초 새롭게 증축된 이 건물은 열화당의 공동체적 가치와 신념이 반영된 아름다운 결실이다. 현재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열화당 구관이 이러한 의지를 알리는 시작이었다면, 더욱 개방적인 성격의 열화당 신관은 그 완성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파주출판도시의 궁극적 목적이 '출판문화공동체'의 형성이었고, 이 건물을 통해 '도시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urbanism)'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것은, 일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2006년 가을, 열화당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방'을 마련할 이 건물의 디자인을 또다시 플로리안 베이겔에게 의뢰했고, 나는 협력 건축가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우리는 열화당 신관이 독립된 오브제가 아니라 주변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를 바랐고, 이러한 '앙상블(ensemble)'이 도시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문명성(civility)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는 이 건물이 출판도시에서 문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했다. 앞마당인 '아트 야드(Art Yard)'는 이러한 문화 클러스터(cluster)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공간으로, 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만남을 담을 수 있는, 작지만 매력적인 카펫(carpet)과도 같은 곳이다. 건물의 주출입구는 이러한 카펫 위에 올라앉은 주랑(柱廊) 현관의 형식을 지니는데, '할래 포티코(Hwalle Portico)'라 이름 붙여진 이 작은 구조물은 하늘에 매달린 조명과 함께, 아트 야드가 단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극장의 무대처럼 창조적 공간으로 다채롭게 변모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한편, 아트 야드와 포티코를 배경으로 서 있는 열화당 신관의 입면(Art Yard Façade)은 출판도시에 색다른 모습을 선사한다. 다양한 비례의 창문들과 수평·수직의 양각(relief)은 단순한 장식이라기보다는 출판도시와 방문객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열화당의 표정으로, 그것이 주는 분위기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서 받는 느낌에 비유될 수 있다. 고전적이면서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이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건물이 형상적(figurative)으로 의인화되어 다른 구조물이나 열린 공간과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이같은 정서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도서관, 책방, 전시장, 북카페,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구분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한다. 이층에 매달린 복도형태의 메자닌(mezzanine)은 여러 용도로 구분된 공간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며, 아래층과도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가 경계 없이 흘러가기를 바랐던 열화당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이곳은 기억의 공간(memorial place)이기도 하다. 한쪽 벽에 움푹 파인 아담한 규모의 벽감(壁嵌, niche)은 '어머니의 성소(聖所)'로,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적 공간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내재된 정신과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이와 같은 정신적 가치들은 건축이 진행되는 내내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사이에서 공유되었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건축의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열화당에 지속적으로 적층될 책, 그것이 담아낼 문화유산이 또 다른 내재된 풍경을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한다.

2010년 1월
최종훈

◀◀ 2009년 증축한 열화당의 신관. 플로리안 베이겔, 필립 크리스토, 최종훈 공동 설계. 화인종합건설 시공. 사진 조너선 러브킨, 2009.

◀ 열화당 신관 '도서관+책방'의 음악 공간. 2010.



도서관+책방 Library+Bookshop 그리고 열화당의 공간들

2009년 열화당에 새로 마련된 '도서관+책방'은 이름 그대로 도서관과 책방의 성격이 하나로 통합된 실험적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발행인과 편집부가 오랫동안 소장해 온 책, 편집자의 눈으로 직접 고른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책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 열화당 가족은 물론 출판도시 이웃, 그리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도서관처럼 열람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간혹 읽다가 갖고 싶은 책을 만나면 구매할 수 있는 책방의 기능도 겸비합니다. 비록 일반 도서관이나 책방처럼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술전문 출판사로서의 특성을 살려 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 서적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출판도시'라는 장소성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만약 이곳 출판사들이 각각의 전문분야를 살린 도서관을 만들어 공유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 전체를 완결성있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책 만드는 이들의 정성은 풍요롭게 되고, 자연히 수준높고 다양한 기획과 편집, 완성도있는 제작이 이루어져 책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화당의 '도서관+책방'은, 출판도시 공동체가 완성해 나갈 '도서관으로서의 도시'라는 큰 그림의 작은 한 조각이며, 우리 이웃에게 건네는 동참의 메시지입니다.

새책 공간 New Books

열화당의 책,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출간된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책이 진열되어 있으며, 열람과 구입이 가능합니다.

옛책 공간 Old Books

1970년대 이전에 출간된 근대서적, 한적(漢籍), 귀중본, 포스터류가 비치되어 있으며, 테마별 도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전시 공간 Gallery

예술작품이 책, 음악, 차향기와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갤러리로, 일 년에 두세 차례 전시가 열립니다.

음악 공간 Music Lounge

음악을 들으며 '도서관+책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라운지로, 영화, 연극, 음악 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공간 Memorial Place

책방 한켠에 마련된 벽감(壁龕)으로, 강릉 선교장의 조상들을 비롯, 인류 역사 문화의 선조들을 기리는 작은 기도실입니다.

북카페 Bookcafe

'도서관+책방' 회원에게 개방된 북카페로, 간단한 음료와 다과가 제공됩니다.

활래 포티코 Hwallae Portico

강릉 선교장 연못에 놓인 정자 활래정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다실(茶室)로, 열화당의 인문정신이 공간적으로 구현된 상징물입니다.

아트 야드 Art Yard

'도서관+책방'의 앞마당으로, 야외 카페로 이용되거나 부정기적으로 작은 공연이나 전시가 열립니다.

연락처

전화 031-955-7020, 7000
이메일 yhdp@youlhwadang.co.kr
블로그 libshop.egloos.com

차례

미술 일반	17
又玄 高裕燮 全集	18
近園 金瑑俊 全集	24
현대미술운동총서	28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38
열화당 미술책방	46
미술 이론 및 에세이	62
住居로 읽는 역사도시의 기억들	76
崔鍾泰 作品全集	80
刻道人 金鍾瑛 選集	82
작품집	83
한국·동양미술 단행본	88
사진·영상	99
열화당 사진문고	100
사진집	116
사진·영화 이론 및 에세이	124
한국전통문화	131
한국전통문화 단행본	132
韓國基層文化의 探究	136
교양 한국문화사	144
한국의 굿	148
춤 그 사람	152
한국의 탈놀이	154
한국전통문화 단행본	158
문학·기타	165
존 버거의 책들	166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70
루브르 만화 컬렉션	172
문학·기타 단행본	178
북시티에서 엮는 이야기	184
책과 선택	185
출간도서 총목록	187
저·역자 소개	197
거래 서점 연락처	213
도서명 찾아보기	218
저·역자명 찾아보기	221